

---

# 가정폭력 노출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김 수 민\*\* · 이 창 배\*\*\*

---

## [국문 요약]

이 연구는 데이트폭력 가해의 영향 요인 중 유년시절 가정폭력 노출에 초점을 두고 이 요인이 데이트폭력으로 발현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로를 거치는지를 연구하였다. 구체적 경로를 분석함에 있어 사회학습이론과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로 각각 폭력허용도와 자아존중감을 활용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년 한국형 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 중 미혼 남성 2,000 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트폭력 가해실태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언어적·신체적 가정폭력 노출이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보여주었으며, 폭력허용도는 두 변수 간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이 발견되었다. 둘째,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의 영향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에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

\* 이 연구는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18R1A5A7023490)

논문투고일 : 2021. 1. 30, 논문심사일 : 2021. 2. 19., 게재확정일 : 2021. 2. 28.

\*\* 동국대학교 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수료(주저자), E-mail : wnswns01@naver.com

\*\*\* 동국대학교 서울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교수(교신저자), E-mail : changbaelee@dongguk.edu

수립 및 폭력에 대한 인식 교육,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개입을 제언하였다.

주 제 어 : 가정폭력 노출, 데이트폭력, 매개효과, 자아존중감, 폭력허용도

##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의 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I. 서론

최근 언론을 통해 ‘부천 데이트폭력사건’, ‘부산 덕천 지하상가 데이트폭력’ 등 데이트폭력 사건들이 보도되는 가운데,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단순한 치정다툼을 넘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경각심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다(오세연·곽영길, 2011; 신소라, 2017).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에 따라 학계에서도 데이트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오주령·박지선, 2019).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데이트폭력 가해에 어떤 기제가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데이트폭력이라는 행위로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단순히 폭력피해 경험과 가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에 의한 긴장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내적 요인인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등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으나,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데이트폭력 가해를 설명한 연구들은 대체로 물리적인 폭력 행동 그 자체를 학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만, 내적 태도인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풍부하지 않다(이병도 · 박현민 · 서우승 · 이창배, 2019). 이러한 내적 요인에 학계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폭력과 같은 일탈 또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적 자극으로 인하여 유발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가해행위로 발현되기 이전에 자아존중과 같은 긴장을 억제 ·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개입된다면 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Hoffmann & Cerbone, 1999).

따라서 이 연구는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유년기의 가정폭력 노출에 초점을 두고 가정폭력 노출이 데이트폭력 행위로 발현됨에 있어서 어떠한 경로를 거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가정폭력 요인은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구분하여 분석하여 가정폭력의 유형별로 보다 구체화된 가정폭력 노출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경로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사회학습이론과 일반긴장이론에 기반을 둔 폭력허용도와 자아존중감이라는 한 개인의 내적 기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에의 노출 경험이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를 형성하고 이후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가정폭력 노출이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경로를 분석하였다. 또한, 폭력허용도와 더불어 내적 긴장 해소요인 중 한 가지인 자아존중감에 주목하여 연구대상이 유년시절에 겪은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절변수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학습이론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은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의 핵심 논제인 ‘비행과 일탈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Akers, 1998). 차별접촉이론에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이

융합되어 발전한 것이 Akers의 사회학습이론으로, 범죄는 개인이 범죄행동 양식을 학습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Sutherland, 1947; Bandura, 1978). 즉,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범죄란 범죄행위와 관련한 규범이나 가치, 행동 등에 대한 학습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때의 학습은 범죄와 관련한 죄책감, 수치심을 느끼는 심리적 측면뿐 아니라 범죄의 실질적인 기술까지 포함한다(Langos, 2012). Akers는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변인으로 차별적 접촉, 모방, 차별적 강화, 정의 등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정은 이 요인들 중 특히 차별적 접촉과 모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차별적 접촉이란 비행이나 범죄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이나 규범을 가진 집단과의 상호작용에 얼마나 노출되는가와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할수록 비행이나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황성현 · 이강훈, 2013; 박현민 · 이병도 · 서우승 · 이창배, 2019). 모방은 타인의 행동 또는 태도를 직 · 간접적으로 관찰하고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모방은 범죄 행동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주변의 가족, 친구, 대중매체를 통해 범죄를 직접 목격하거나 관찰한 경험이 많을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Akers, 2011).

이러한 이론의 내용을 폭력행동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에 적용하면, 폭력은 개인이 친밀한 집단으로부터 폭력적 행동 양식과 함께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학습하고, 그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시절의 1차적 사회화 기관인 가정에서 폭력에 노출되면 폭력행위를 거부감 없이 수용하게 되고 나아가 부모의 폭력적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성인기에 이르러 데이트폭력이라는 가정 밖에서의 폭력행위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성인기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고, 직접 폭력을 경험하지 않고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간접경험 역시 폭력 가해행동과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세은 · 정지수, 2019; Dardis, Dixon, Edwards, & Turchick, 2014)

## 2. 일반긴장이론

Agnew & White(1992)는 Merton(1938)의 아노미 이론에 근간을 둔 전통적 긴장이론을 발전시켜 일반긴장이론을 주장하였다. 전통적 긴장이론은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있으나 그 목표를 달성할만한 적절한 수단이 없는 상황을 아노미라고 규정하여, 목표로 하는 실제적 성공이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성취할 수 없을 때 긴장이 나타나고 그 결과 범죄행위가 일어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Agnew는 긴장이론을 미시적 관점으로 확장하여 학교, 직장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긴장 유발 요인들에 의해 우울, 분노, 좌절감과 같은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제안하였다(Agnew, 1992).

Agnew는 긴장을 야기하는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을 제시하였다. 목표달성의 실패는 기대한 목표와 실제의 성취결과 간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으로, 예를 들어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갈 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았거나 합격의 가능성이 희박할 때 긴장이 발생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이완희, 2014). 긍정적 자극의 소멸은 가족이나 애착관계에 있는 친구와의 이별, 부모의 이혼, 가족의 죽음 등 긍정적인 자극을 주던 대상의 박탈에서 오는 긴장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부정적 자극의 발생은 가정에서의 학대 피해 경험, 친구들의 괴롭힘, 신체적 체벌 경험, 범죄피해의 경험 등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긴장요인을 말한다(문병옥 · 황혜원, 2006).

Agnew는 이후 이러한 긴장 요인들을 객관적 긴장 요인과 주관적 긴장요인으로 구분하여 긴장 요인을 보다 세분화하여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주관적 긴장 요인에 주목하여 객관적으로 대체로 긴장을 느낄만한 상황에 직면 하더라도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상태나 상황 수용능력에 따라 긴장에 대한 반응을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Agnew, 2011). 이러한 주관적 긴장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의 개별적 내적 기제인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일반긴장이론에서 제시하는 긴장을 상쇄시키는 역할로서 긍정적 기제인 자아존중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하면 일탈이나 범죄를 하는 이유는 부정적 자극으로 스트레스(긴장)가 유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행위로 구현되기 이전에 스트레스를 일부 혹은 전부를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개입된다면 그러한 행동을 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김기환, 2009; Hoffmann & Cerbone, 1999).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내재적 스트레스 해소요인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에 주목하여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라는 부정적 자극에 의한 긴장이 자아존중감이라는 해소요인의 개입으로 영향을 받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 3. 선행연구 검토

#### 1) 가정폭력 노출과 데이트폭력

사회학습이론에서는 ‘폭력, 학대 등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은 관찰학습을 통해서 학습된다.’고 본다. 특히, 유년기 관습과 규범의 관찰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체로 일차적 양육환경인 가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만약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되면 직·간접적으로 폭력의 효용성을 경험하게 된다(이승주·정병수, 2015; 박정은, 2018).

Ronfeldt, Kimberling과 Arias는 어린 시절 신체적 학대 경험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결과 가정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연인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onfeldt, Kimberling, & Arias, 1998).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는 국내연구에도 존재하는데, 아동기에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면 타인과의 관계발달 능력에 결함이 생겨 타인에 대한 불신과 과도한 관계 긴장 및 공격성을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윤진·양승연·박병금, 2012).

실제 많은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에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우, 부모에 의해 직접적인 폭력과 마찬가지로 장래의 폭력행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엄애선, 2010; 박정은, 2018; 최윤경·송원영, 2014). 서울시내 남·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목격 경험과 데이트 성폭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 성장 후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은경·엄애선, 2010). 어린 시절 학대경험이 대학생

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나아가 심리적,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이지연·오경자, 2007). 실제 이성간 발생한 갈등 대처방식과 정도는 가족으로부터 많은 부분 학습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에는 장래 이성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그 해결방식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동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차정화·전영주, 2002).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에 의해 직접적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은 개인의 공격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갈등해결 방법으로서 폭력의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다.

## 2)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

사회학습이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죄와 관련하여 학습되는 대상은 범죄행위뿐 아니라 범죄에 태도가 포함된다. 어린 시절의 학대피해경험은 폭력 자체를 학습하는 동시에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를 형성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Sutherland, 1947; Bandura, 1978). 어린 시절 학대받은 경험과 폭력허용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성장기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우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폭력을 선택하는 등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DeMaris, 1987; Marcus et al, 2001; 정혜정, 2003). 가정에서 부모가 갈등의 해결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 후 학습하여, 폭력을 갈등해결의 긍정적 수단으로 내재화하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폭력허용도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두 변인 사이의 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어,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구혜영, 2017; 서강현, 2004).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수행한 한 연구에서는 폭력허용도가 데이트 폭력가해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손혜진·전귀연, 2003), 폭력에 대한 인식과 폭력허용도

를 바탕으로 데이트 폭력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도 폭력에 대한 인식이 관대하고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실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이은숙·강희순, 2014).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와 관련하여, 한 연구는 2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폭력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폭력허용도의 유의미한 매개 효과를 발견하였다(김희연, 2020). 또한, 아동기에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것이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 때의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폭력에 대한 태도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지연·오경자, 2007). 그 외에도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인식도의 관계(송옥주, 2016)와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과의 관계(한채원, 2017) 등에서도 폭력허용도의 매개 역할이 확인되었다.

### 3)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개인의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으로 학자들에 따라 자기수용, 자기존중, 자존감, 자아개념, 자신감, 자기수용 등의 용어들로 사용되고 있다(Rosenberg, 1979; James, 1980; 이여훈, 2009).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관련하여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감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심리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진선, 2017). 청소년의 문제행동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삶을 보람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자신 있게 행동함으로써 원만한 사회생활을 전개해가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이는 자신을 가치 없고 나약한 존재로 인식하여 열등감을 느낀다고 보았다(윤혜미·박병금, 2005). 해외연구로는 Reasoner(1982)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비교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수용할 줄 알고 각자의 능력을 잘 인식한다고 하였다. 요약하자면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내재한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감정



을 극대화 하려는 동기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주로 청소년의 비행이나 폭력범죄와의 관계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Donnellan et al., 2005; 김태량 · 김경화, 2017; 전신현, 2019), 데이트폭력에 한정하여 그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일부만이 존재하였다. 그 예로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데이트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데이트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며, 데이트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김보경 · 김혜경 외, 2018; 정민영 · 이라진, 2020). 또한,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데이트 성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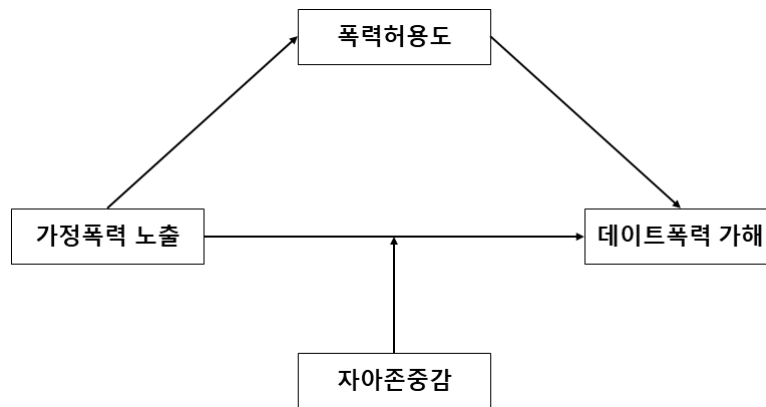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대개 청소년 범죄나 비행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폭력피해 경험과 새로운 폭력가해 및 비행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 역할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피해자의 가해행동 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Kort-Butler, 2010).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와 대처방식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한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피해대처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연숙 · 이은희 · 이은주, 2017). 가정폭력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신체적 폭력을 감소시키는 완화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병도 · 박현민 · 서우승 · 이창배, 2019).

### Ⅲ. 연구의 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적 요인으로서의 폭력허용도와 자아존

중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연구모형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1.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될수록 데이트폭력 가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2. 폭력허용도는 가정폭력노출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3. 가정폭력 노출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 2. 자료의 수집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2015」에서 수집한 자료의 일부를 발췌하였다.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 폭력피해 실태’와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 가해실태’로 구분되었는데, 연구의 취지에 따라 데이트폭력 가해실태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에 응답한 연구대상자는 전국 19세 이상 60세 미혼 남성 2,000

명이며, 이 집단은 조사실시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패널 약 110만 명 중 인구비례 할당추출을 통하여 선정되었다. 데이트폭력 가해와 관련한 민감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홍영오·연성진·주승희, 2015).

### 3. 변수의 측정

####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이다.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은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가하거나 위해 의도가 인정되는 폭력행동을 뜻한다(Straus et al., 1996). 이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을 정신적, 신체적, 성적 가해 행동을 통합하여 단일 변수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상대방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다”,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진 적이 있다”, “뜨거운 물이나 불로 화상을 입힌 적이 있다”,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는데도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 적이 있다”,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잡거나 누르는 등의 완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등을 포함한 총 30개의 문항이며, 각 문항은 ‘없음’을 1, ‘일 년에 한두번’을 2, ‘한 달에 한두번’을 3, ‘1주일에 1회 이상’을 4, ‘거의 매일’을 5로 설정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연구대상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으로 선정하였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이라 정의한 것은 연구대상이 직접적 학대를 당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부모 간 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목격한 간접적 경험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노출 경험은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으로 구분하여 가정폭력의 유형에 따라 정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언어적 폭력은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다”,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등 4개 문항으로, 신체적

폭력은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나에게 던진 적이 있다”, “거칠게 밀치거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발로 찬 적이 있다”, “주먹 또는 물건(혁명, 몽둥이 등)으로 심하게 마구 때린 적이 있다”, “칼(가위)이나 총 등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직접 폭력을 경험한 경우와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우 모두 동일한 문항으로 설문하였으며, 직접 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나에게’,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우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대에게’라는 문구를 통해 구별하여 설문하였다. 모든 문항은 ‘없음’을 1, ‘일 년에 한두번’을 2, ‘한 달에 한두번’을 3, ‘1주일에 1회 이상’을 4, ‘거의 매일’을 5로 설정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3) 매개변수 및 조절변수

매개변수로 설정한 폭력허용도는 ‘갈등의 해결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얼마나 허용적으로 생각하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폭력허용도는 “헤어지자고 위협하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논쟁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나 외에 다른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욕이 섞인 호칭으로 부르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가족/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우습게 만들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밤에 다른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을 막으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의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에서 ‘완전 동의함’ 4까지 리커트 4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조절변수로 설정한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들은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체로 나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남들에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유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등 10개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 5의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마지막 3개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이므로 역코딩하여 측정하였다.

#### 4.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5.0과 AMOS 26.0을 활용하였다.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으로 연구대상이 되는 표본과 주요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Pearson 상관계수를 활용하였다.

주요 변수들 간 경로와 상세한 효과를 검토하기 이전에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절대적합지수로  $\chi^2$ ,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IFI), 터커루이스지수(Tucker and Lewis Index, TLI)를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구조모형의 적합도와 계수를 확인한 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하여 다집단 동시구조방정식 모형을 실행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학력, 고용상태를 빈도분석으로 확인

하였다(<표 1> 참조). 분석결과 연령은 19~29세가 1,263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63.1%) 30대가 535명(26.8%)으로 그 뒤를 이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162명(8.1%), 40명(2.0%)을 차지하였는데 연구대상의 연령이 젊은 것은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학력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256명, 62.8%), 고등학교 졸업(309명, 15.5%)과 2년제 대학 졸업(280명, 14.0%)이 그 뒤를 이었다.

고용상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학생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였다. 정규직이 797명(39.9%)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472명(23.6%)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르바이트와 휴직 및 기타가 397명(19.9%), 168명(8.5%)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이 166명(8.3%)으로 가장 낮은 비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항 목	빈 도(명)	비 율(%)
연 령	19~29세	1,263	63.1
	30~39세	535	26.8
	40~49세	162	8.1
	50~59세	40	2.0
학 력	중학교 졸업 이하	20	1.0
	고등학교 졸업	309	15.5
	2년제 대학 졸업	280	14.0
	4년제 대학 졸업	1,256	62.8
	대학원 석사 졸업	104	5.2
	대학원 박사 졸업	31	1.6
고용상태	정규직	797	39.9
	비정규직	166	8.3
	아르바이트	397	19.9
	학생	472	23.6
	휴직 등 기타	168	8.5
전 체(N)		2,000	100.0

##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과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은 1에서 5의 범위를 가지며, 각각의 평균은 1.39, 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의 평균점수가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의 평균점수보다 약 0.6 높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폭력보다 언어적 폭력의 행사가 더 빈번하기 때문이다.

매개변수인 폭력허용도의 경우 1에서 4의 범위에서 평균이 1.31점으로,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은 1에서 5의 범위에서 평균이 3.21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폭력허용도는 비교적 낮은 반면, 자아존중감은 중간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데이트폭력 경험은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포괄하는 변수로 평균은 1.23점이었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 분	항 목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독립변수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	1	5	1.39	.645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	1	5	1.23	.569
조절변수	자아존중감	1	5	3.50	.485
매개변수	폭력허용도	1	4	1.31	.529
종속변수	데이트폭력가해	1	4	1.18	.415

다음으로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계수 값은 1에서 -1의 값을 가지며, 1은 상관성을 비교하는 두 변수가 서로 같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pm 0.9$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다중공선성이 문제된다. <표 3>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과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이 .864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두 변수는 모두 독립변수로 각각 구분된 모형에서 분석되었고, 이외의 모든 값은  $\pm 0.7$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부분에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lt;표 3&gt;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 분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	폭력허용도	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가해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	1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	.864**	1			
폭력허용도	.413**	.518**	1		
자아존중감	-.214**	-.196**	-.186**	1	
데이트폭력가해	.520**	.642**	.571**	-.160**	1

\*:p&lt;.05, \*\*:p&lt;.01 \*\*\*:p&lt;.001

### 3.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

#### 1) 구조모형 분석

매개변수의 효과는 변수의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에 앞서 측정하고자 하는 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경로에 따른 구조모형 계수를 검증하였다. 아래의 <표 4>와 <표 5>는 각각 언어적 가정폭력과 신체적 가정폭력 모형의 적합도 및 구조모형 계수를 보여준다. 먼저 <표 4>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절대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인 RMSEA가 .085, 중분 적합도 지수(Incremental fit index)값들이 각각 NFI: .950, TLI: .941, CFI: .953으로 나타났다. RMSEA는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수준 .08이하는 괜찮은 수준, .10 미만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모형은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보여주었다(Hu & Bentler, 1999). RMSEA를 제외한 모든 지수는 좋은 적합도의 범위에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결정된 모형의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 빈도가 높을수록 폭력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461, p < .001$ ),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472, p < .001$ ). 또한,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과 데이트폭력 가해의 직접적 관계에 있어서도 언어적 가정폭력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eta = .390, p < .001$ ).



&lt;표 4&gt;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

경로	Estimate		S.E	C.R
	B	$\beta$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 → 폭력허용도	.410	.461	.022	18.858***
폭력허용도 → 데이트폭력 가해	.324	.472	.016	19.622***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 → 데이트폭력 가해	.238	.390	.015	16.307***
NFI:.950, TLI:.941, CFI:.953, RMSEA:.084				

\*:p&lt;.05, \*\*:p&lt;.01 \*\*\*:p&lt;.001

&lt;표 5&gt;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

경로	Estimate		S.E	C.R
	B	$\beta$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 → 폭력허용도	.556	.580	.023	24.480***
폭력허용도 → 데이트폭력 가해	.222	.328	.016	13.959***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 → 데이트폭력 가해	.365	.563	.017	21.199***
NFI:.951, TLI:.943, CFI:.954, RMSEA:.085				

\*:p&lt;.05, \*\*:p&lt;.01 \*\*\*:p&lt;.001

<표 5>는 신체적 가정폭력의 모형 적합도 및 구조모형 계수를 제시한 표이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각각 NFI : .951, TLI : .934, CFI : .954, RMSEA : .085로 모든 지표들이 비교적 좋은 적합도의 범위에 들면서 모형의 적합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에서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인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 빈도가 높을수록 매개변수인 폭력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beta=.580$ ,  $p<.001$ ). 또한, 매개변수인 폭력허용도와 종속변수인 데이트폭력 가해는 정적(+)관계를 보임으로써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경험 가능성이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독립변수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과 종속변수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였다.

## 2) 매개효과 분석

연구대상의 언어적·신체적 가정폭력 노출과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 및 매개변수인 폭력허용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와 간접효과의 유효성을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표 6>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에서의 폭력허용도 매개효과 검증

구 분	총 효과(직접효과, 간접효과)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	폭력허용도
폭력허용도	.461** (.461**, .000)	
데이트폭력 가해	.607** (.390**, .218**)	.472** (.472**, .000)

\*:p<.05, \*\*:p<.01 \*\*\*:p<.001

<표 6>은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에서의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독립변수인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은 매개변수인 폭력허용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461$ ,  $p<.01$ ). 폭력허용도 또한 종속변수인 데이트폭력 가해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72$ ,  $p<.01$ ).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유의하여 봐야 할 것은 간접효과인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과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폭력허용도는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eta=.218$ ,  $p<.01$ ). 즉,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과 폭력허용도가 데이트폭력 가해에 대하여 직접효과가 있고,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과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폭력허용도가 간접효과가 있으므로 변수 간의 관계에서 폭력허용도는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t;표 7&gt;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에서의 폭력허용도 매개효과 검증

구 분	총 효과(직접효과, 간접효과)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	폭력허용도
폭력허용도	.580** (.580**, .000)	
데이트폭력 가해	.753** (.563**, .190**)	.328** (.328**, .000)

\*:p&lt;.05, \*\*:p&lt;.01 \*\*\*:p&lt;.001

<표 7>은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에서의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로 폭력허용도는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역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beta=.190$ ,  $p<.01$ ). 이때의 간접효과는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직접효과가 있으므로 부분매개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과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 모두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폭력허용도가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가정폭력 노출 유형별 폭력허용도의 간접효과를 보면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에서의 폭력허용도 간접효과 유의확률은  $p<.004$ ,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의 경우는  $p<.003$ 으로 두 변수 모두 폭력허용도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 4.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보기 위해 먼저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을 측정하고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그대로 설정한 자유모델과 잠재변수 간의 관계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설정한 제약모델을 비교한 후 실질적인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 1) 모델 비교

연구모형에서 특정 변수가 조절변수로 역할을 한다고 보기위해서는 어떠한 제약

도 가하지 않은 자유모델과 설정한 집단에 구조적으로 제약을 가한 제약모델을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자유모델이 제약모델이 동일하다는 것이 귀무가설로 설정되어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으면 두 모델을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조절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독립변수별 연구모형에서의 자유모델과 제약모델 차이는 아래의 <표 8><sup>1)</sup>과 같다.

<표 8> 독립변수별 자유모델과 제약모델 차이 비교

제약모델	DF	CMIN	P	NFI Delta-1	IFI Delta-2	RFI Delta-1	TLI Delta-2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	1	5.285	.022	.000	.000	.000	.000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	1	.482	.487	.000	.000	-.001	-.001

먼저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부터 보면  $\Delta df=1(125-124)$ ,  $\Delta \chi^2=5.285$  (1242.915-1237.630)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의확률인데,  $p=.022(p<.05)$ 로 유의하다 볼 수 있으므로 귀무가설 즉, 자유모델과 제약모델이 동일하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 변수의 경우  $df=1(125-124)$ ,  $\Delta \chi^2=.482(1273.781-1273.299)$ 이고,  $p=.487$ 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즉,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과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sup>2)</sup> 이하에서는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 변수와 데이트 폭력 가해 간 관계에서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토한다.

## 2) 조절효과 분석

위의 모델 비교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은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에 대하여만 검증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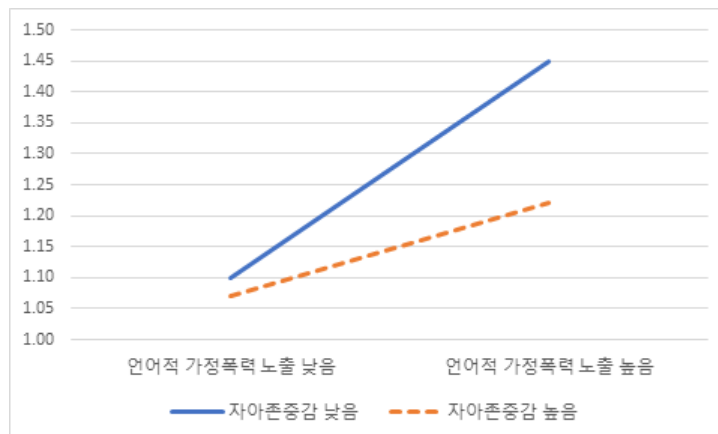
- 1) <표 8>의 DF란 자유모델과 제약모델 간의 자유도 차이를 의미하며, CMIN은 두 모델 간의  $\chi^2$  값 차이를, p는 p-value 즉, CMIN 및 DF 관계에 대한 유의수준을 뜻한다.
- 2) 언어적 가정폭력에서만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은 전체 자료에서 행위별 빈도가 약 2배 정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언어적  $n=558$ ; 신체적  $n=277$ ).

&lt;표 9&gt;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분석

경로	집 단	$\beta$	S.E	C.R	p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 → 데이트폭력 가해	자아존중감 고	.346	.031	5.243	***
	자아존중감 저	.393	.017	14.840	***

\*:p&lt;.05, \*\*:p&lt;.01 \*\*\*:p&lt;.001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과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beta=.346(P<.001)$ 로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beta=.393(P<.001)$ 으로 그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과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보다 미세하게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그림 2>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lt;그림 2&gt;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그래프

<그림 2>는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과 데이트폭력 가해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각각의 기울기는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종속 변수 즉, 데이트폭력 가해의 증가폭을 보여준다. 그림을 보면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의 빈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의 데이트폭력 가해의 상승폭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이 연구는 유년시절에 겪은 가정폭력 노출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허용도와 자아존중감이 각각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로 첫째, 어린 시절 언어적·신체적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우 데이트폭력 가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폭력허용도의 수준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높은 수준의 폭력허용도는 데이트폭력 가해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부분매개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폭력피해 노출과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폭력허용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희연, 2020; 이지연·오경자, 2007). 또한, 폭력적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를 학습하여 갈등해결수단으로 폭력을 선택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DeMaris, 1987; Marcus et al, 2001; 구혜영, 2017; 서강현, 2004). 특히, 이 연구는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과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을 분리하여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폭력의 심각도가 언어적 폭력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노출된 폭력의 유형과 관계없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고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김보경·김혜경 외, 2018; 정민영·이라진, 2020) 다만, 이 연구에서는 모델의 비교 단계에서 신체적 가정폭력 노출의 효과에 대한 가설이 기각되어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에서만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언어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보다 더 빈번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공격성, 분노사고, 분노표현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새로운 폭력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Wang & Kenny, 2014; 박소정, 2016).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언어적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될수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Agnew가 객관적 긴장상황의 영향을 개인의 심리적 상태나 상황수용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자아존중감이라는 내적기제가 가정폭력 노출이라는 객관적 긴장상황에 따라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에의 영향력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면서 부정적 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로 이어지므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성 차단을 위한 노력 등 구체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폭력에 노출되면서 폭력을 학습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유년기부터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미국의 소설가 Isaac Asimov(1920-1992)는 ‘폭력은 무능력자들의 마지막 피난처다’라고 말한 바 있다(한채원, 2017 재인용). 이는 갈등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을 알지 못해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전에 이러한 수단을 잘못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끌어 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기 위한 상담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그 효과성이 증명된 바 있다(박지현·최지영, 2016; 김종운·김현정, 2010).

이 연구의 큰 한계는 연구의 대상이 미혼 남성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데이트폭력은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가정폭력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 대상으로 여성과 기혼남성을 포함하면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여성과 기혼 남성을 모두 포함한 표본에서 그 차이를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전의 연구들이 다루지 못한 어린 시절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시도는 어린 시절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폭력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단순한 도식에서 탈피하여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활용하여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구체적인 예방정책 수립과 정책의 적절한 투입 시기 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구혜영. (2017). “대학생 데이트폭력 허용성 영향요인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8: 37-68.
- 김기환. (2009). “부모의 자녀학대가 보호관찰청소년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호관찰』, 9(2): 215-258.
- 김보경 · 김혜경 · 이아영 · 김태우 · 박재희 · 김동욱. (2018). “대학생의 양성평등 의식, 자아존중감이 데이트 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용과학기술 학회지』, 35(3): 768-777.
- 김보미. (2017).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6): 525-533.
- 김은경 · 엄애선. (2010).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59-777.
- 김중운 · 김현정. (2010).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22(1): 123-140.
- 김태량 · 김정화 (201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2): 628-643.
- 김희연. (2020). “20대 미혼남녀의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와 파트너 통제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병욱 · 황혜원. (2006).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을 통한 한국 청소년의 비행이 해”, 『아동권리연구』, 10(2): 127-150.
- 박소정. (2016). “호텔종사원이 지각하는 직장 내 언어폭력이 분노사고 및 분노표 현에 미치는 영향 -언어폭력과 분노사고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은. (2018).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현 · 최지영. (2016). “가정폭력노출아동을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내재/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효과”,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91-91.
- 박현민 · 이병도 · 서우승 · 이창배. (2019). “아동기 직 · 간접적 폭력 경험이 미혼 성인 남성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21(4): 71-108.
- 서경현. (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147-162.
- 서진선. (2017).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과 교사 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혜진 · 전귀연. (2003). “미혼 남녀의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43-63.
- 송옥주. (2016).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폭력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성에 대한 태도와 폭력 허용도의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초당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소라. (2017). “성폭력 피해 경험과 음주습관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범죄경력의 매개효과”, 『한국경찰학회보』, 19(6), 179-206.
- 오세연 · 곽영길. (2011).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3(5): 3-28.
- 오주령 · 박지선. (2019).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47-65.
- 윤진 · 양승연 · 박병금. (2012). “가정폭력경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열등감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6): 79-107.
- 윤혜미 · 박병금. (2005).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 요인-생태 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 134-164.
- 이병도 · 박현민 · 서우승 · 이창배. (2019).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아동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 307-344.

- 이승주 · 정병수. (2015).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경찰학회보』, 17(3): 223-250.
- 이여훈. (2009). “자기성장 집단상담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완희. (2014). “한국 청소년들의 중비행에 관한 범죄이론적 비교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6(1): 139-160.
- 이은숙 · 강희순. (2014).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성폭력 경험”, 『동서간호학연구지』, 20(1): 48-56.
- 이지연 · 오경자. (2007). “아동 학대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 조절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8(1): 586-587.
- 전신현. (2019). “학교적응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초, 중, 고 세 학령별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73-97.
- 정민영 · 이라진. (2020).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이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과학논집』, 25(2): 92-101.
- 정혜정. (2003).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73-91.
- 조유현 · 김경희. (2015). “대학생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 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성인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9: 71-96.
- 차정화 · 전영주. (2002). “이성교제 커플의 원가족 건강성과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39-57.
- 최연숙 · 이은희 · 이은주. (2017).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고정관념,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과의 관계”. 『계명간호과학』, 21(1): 23-33.
- 최윤경 · 송원영. (2014). “여대생의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4): 43-46.
- 한채원. (2017).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 데이트 폭력 허용도와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은·정지수. (2019).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형사정책연구」, 30(4): 69-104.
- 홍영오·연성진·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성현·이강훈. (2013).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사회학습, 사회유대, 일반 긴장이론적 접근”, 「청소년연구」, 24(3): 127-145.

## 2. 국외문헌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 \_\_\_\_\_. (2011). “Toward a unified criminology: Integrating assumptions about crime”, people and society (Vol. 1). NYU Press.
- Agnew, R., & White, H. R. (1992).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0(4): 475-500.
- Akers, R. L.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_\_\_\_\_. (2011).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Transaction Publishers.
- Bandura, A. (1978). “Social learning theory of aggress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8(3): 12-29.
- Dardis, C. M., Dixon, K. J., Edwards, K. M., & Turchik, J. A. (2015). “An examination of the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young men and women and associated theoretical explanat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 Abuse*, 16(2): 136-152.
- DeMaris, A. (1987). “The efficacy of a spouse abuse model in accounting for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8(3): 291-305.

-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Moffitt, T. E., & Caspi, A.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4): 328-33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ames, W.(198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Henry Holt.
- Hoffmann, J. P., & Cerbone. F. G. (1999). "Stressful life events and delinquency escalation in early adolescence", *Criminology*, 37(2): 343-374.
- Kort-Butler, L. A. (2010). "Experienced and vicarious victimization: Do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prevent delinquent respons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4): 496-505.
- Langos, C. (2012). "Cyber bullying: The Challenge to Define", *Cyber 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5(6): 285-289.
- Marcus, N. E., Lindahl, K. M., & Malik, N. M. (2001). "Interparental conflict, children's social cognitions, and child aggression: A test of a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2): 315.
- Merton, R.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672-682.
- Reasoner, R. (1982). *Building self-esteem: A comprehensive program for schools*,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 Ronfeldt, H. M., Kimberling, R., & Arias, I. (1998).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power, sex, and attachment style: A couples level analysi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0(4): 241-251.
- Rosenberg, M. (1979).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utherland, E. 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4th ed.), Oxford, England: J. B. Lippincott.
- Wang, M. T., & Kenny, S. (2014). "Longitudinal links between fathers' and mothers' harsh verbal discipline and adolescents'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ve symptoms", *Child development*, 85(3), 908-923.

<ABSTRACT>

The Influence of domestic violence exposure on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Mediating effect of  
violence acceptabi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Kim, Su min\* · Lee, Chang-Bae\*\*

This study focused on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in childhood and examined whether it influenced dating violence. In analyzing specific pathways, violence approval and self-esteem were used as parameters and control variables based on Social learning theory and General strain theory, respectively. The data were excerpted from the data of “Dating Violence Survey” collected from 2,000 unmarried men, conducted by the Korea Crimi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in 2015.

As a result, first, both verbal and physical domestic violence exposure had a direct effect on dating violence, and violence toleranc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 a partial mediating effect.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verbal domestic violence and the dating violence.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 wide range of measures for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education against violence, and intervention for self-esteem improvement programs were suggested.

---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in the Graduate School at Dongguk University(Seoul).

\*\* Professor, School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at Dongguk University(Seoul).

Key Words : Domestic Violence, Dating Violence, Mediating Effect, Violence  
Acceptability, Self-esteem